

2021~2025

MZ세대 기혼남녀 연애·결혼 인식 변화

2026/04/28

가연결혼정보(주) 결혼연구소

조사 개요

주제1. 기혼남녀 '결혼 생활 만족도' 리포트 (2021~2025)

1) 가연결혼정보 성혼 회원 분석 (2021~2025)

& 실질 지표_매칭만족도 (2023~2026)

주제2. 기혼남녀 '생활비 관리' 리포트 (2021~2025)

2) 결론 및 요약

조사 기간

주제1. 2021 / 2025

주제2. 2021 / 2025

조사 대상 (조사 별 표기)

25~39세 기혼남녀 500명 (남녀 각 250명)

조사 기반

오픈서베이 기반 설문

가연결혼정보(주) 결혼연구소 분석



기혼남녀 '결혼 생활 만족도' 인식 리포트 (2021~2025)

1.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조사 대상 및 인원

2021.07.07 기혼남녀 500명 (남녀 각 250명, 25~39세)

2025.01.16 기혼남녀 500명 (남녀 각 250명, 25~39세)

조사 주체 가연결혼정보(주)

조사 방식: 오픈서베이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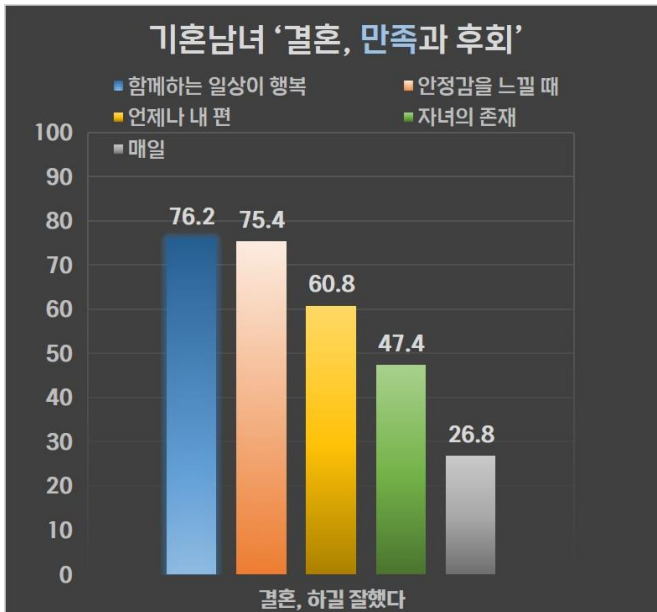
표본오차:

2021.07.07 조사 $\pm 4.38\%P$ (95% 신뢰수준)

2025.01.16 조사 $\pm 4.38\%P$ (95% 신뢰수준)

2. 연도별 조사 결과

'결혼, 만족과 후회' (중복 응답 가능) (2021.07.07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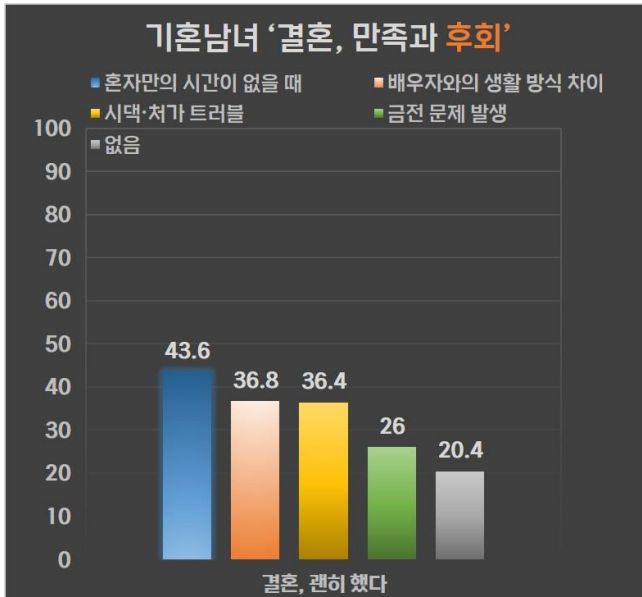
“결혼, 하길 잘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할 때 (76.2%)

-배우자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때 (75.4%)



- 언제나 내 편으로 힘이 된다고 느낄 때 (60.8%)
- 자녀의 존재로 기쁨을 느낄 때 (47.4%)
- 매일 (26.8%)
- 그럴 때가 없다 (1.2%)
- 기타 (1.2%) :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때 /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화를 할 때 / 내 일을 도와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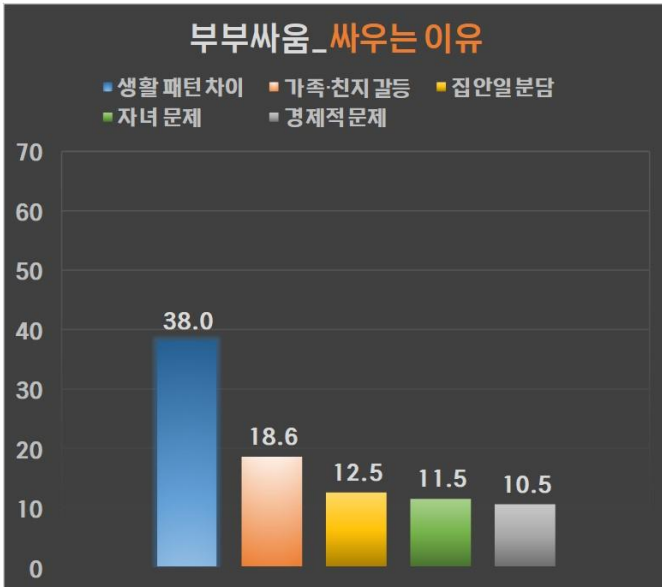
“결혼, 괜히 했다”

-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 (43.6%)
- 배우자와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느낄 때 (36.8%)
- 시댁·처가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36.4%)
-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26%)
- 없음 (20.4%)
- 결혼으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 (12%)
- 배우자에게 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4.8%)
- 기타 (1.6%) : 참석해야 할 행사가 많아졌다고 느낄 때 / 연인일 때의 감정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낄 때 / 결혼을 너무 일찍 했다고 느낄 때

'결혼, 부부싸움 경험' (2025.01.1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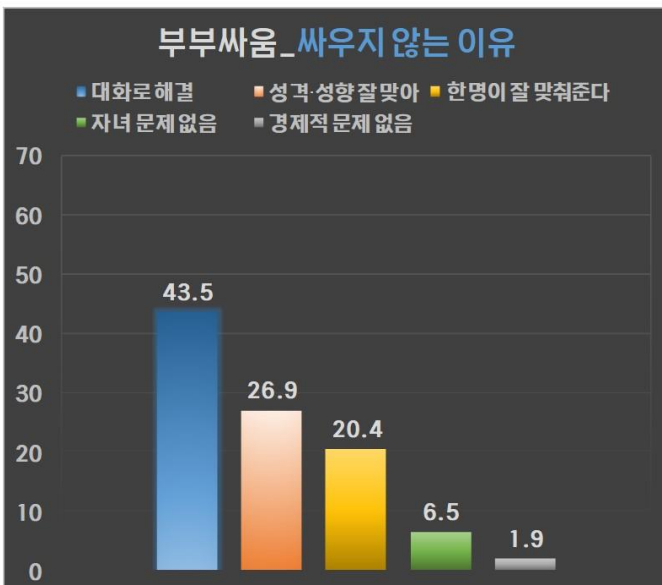
“부부싸움, 한 적 있다”

- 있다 (78.4%) / 없다 (21.6%)



“싸우는 원인은?”

- 생활 패턴의 차이 (38%)
- 제3자로 인한 갈등(가족·친지) (18.6%)
- 집안일 분담 (12.5%)
- 자녀와 관련된 문제 (11.5%)
-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 (10.5%)
- 기타 (6.9%) : 성격 차이 / 술·담배 / 사소한 말다툼 / 보기 전부
- 제3자로 인한 갈등(친구·동료) (2%)



“싸우지 않는 이유는?”



- 대화를 많이 나눠 해결하기 때문 (43.5%)
- 성격·성향이 너무 잘 맞아서 (26.9%)
- 둘 중 한명이 잘 맞춰준다고 생각한다 (20.4%)
- 딱히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없어서 (6.5%)
- 딱히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서 (1.9%)
- 기타 (0.9%)

3. 조사 분석

1) 만족과 갈등의 핵심은 모두 '일상'

2021년 조사: 결혼 만족도 1위 →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할 때

2025년 조사: 싸움 원인 1위 → 생활 패턴의 차이

→ 결혼생활의 만족과 갈등은 모두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 운영의 질에서 나뉜다.

2021년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이 결혼 만족의 핵심으로 나타났고, 2025년 조사에서는 '생활 패턴의 차이'가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는 결혼생활의 만족과 갈등 모두가 일상의 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결혼 만족과 갈등 예방의 핵심은 '잘 맞는 관계'

2021년 조사: 만족 요인 → 안정감 / 내 편이라는 느낌 / 가치관 공유 / 고민을 나누는 대화

2025년 조사: 싸우지 않는 이유 → 대화를 많이 나눠 해결 / 비슷한 성격·성향 / 둘 중 한 명이 잘 맞춰줘서

→ 조사 모두, 결국 관계의 안정성, 대화, 성향의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2021년 조사에서 결혼 만족은 정서적 안정과 관계적 지지에서 비롯됐고, 2025년 조사에서는 대화와 성향의 합, 상호 조율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질문이지만, 결국 결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관계 적합성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3) 후회와 싸움, 원인의 공통점

2021년 조사: 후회 요인 → 혼자만의 시간 부족 / 생활 방식의 차이 / 시가·처가 트러블 / 금전 문제



2025년 조사: 싸움 원인→ 생활 패턴 차이 / 가족·친지 갈등 / 집안일 / 경제적 문제

→ 2021년에는 '후회되는 순간', 2025년에는 '실제 싸움의 원인'으로 표현, 결혼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 과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 결혼을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 생활 방식 차이, 처가·시가 갈등, 금전 문제는 2025년 조사에서 실제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과도 상당 부분 겹쳤다. 이는 기혼자들이 결혼생활에서 부담으로 체감하는 요소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갈등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결혼의 긍정 요인

2021년 조사: 만족하는 순간 평균 선택 2.89개 / 후회하는 순간 평균 선택 1.82개

2025년 조사: 부부싸움 경험 있음 78.4%

→ 갈등이 있다고 해서 결혼의 가치가 낮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2021년 조사에서는 기혼자들이 결혼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5년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부부싸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결혼생활이 전반적으로는 만족의 영역이더라도, 갈등은 역시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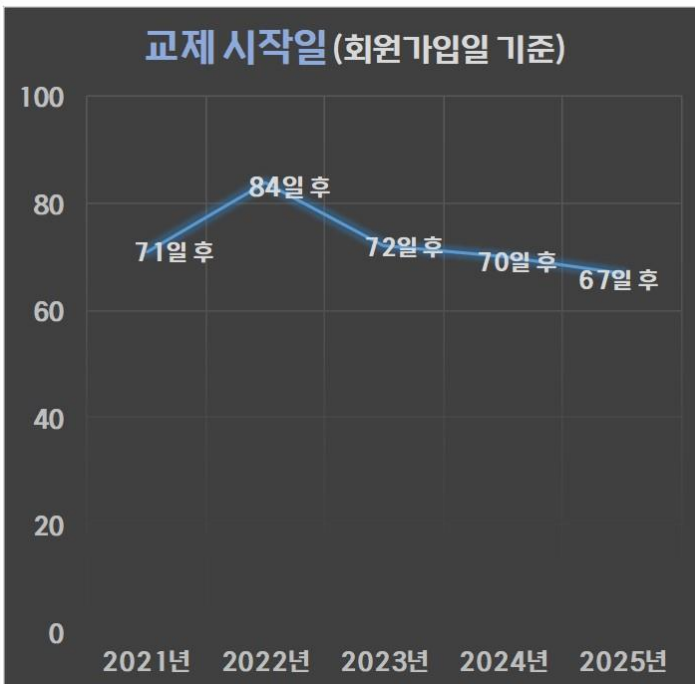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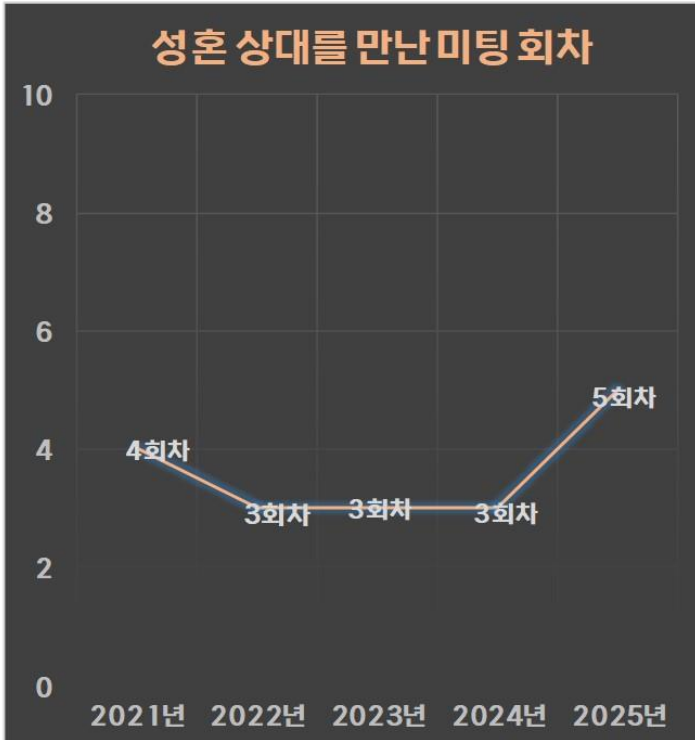
4. 가연결혼정보(주) 결혼연구소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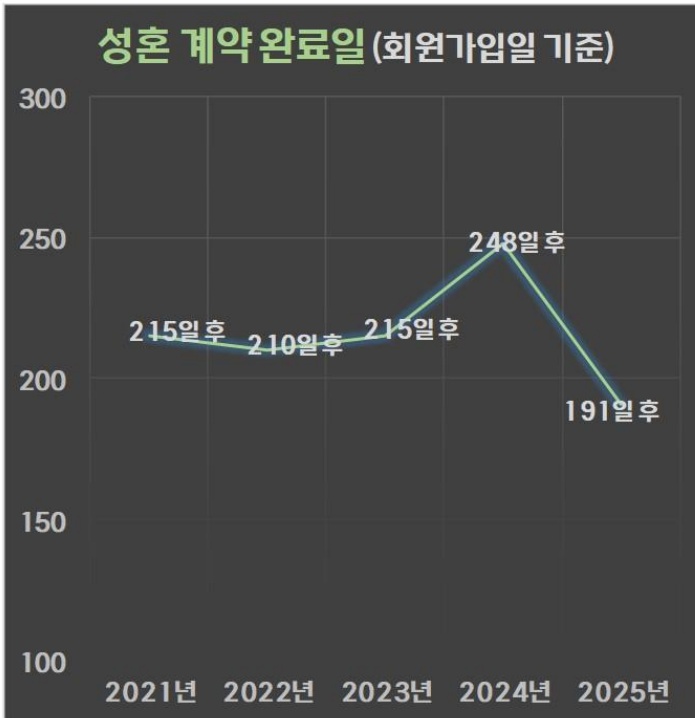
2021년 조사에서 중복 응답을 고려하면, 응답자들은 결혼을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평균 2.89개의 보기를 선택, 후회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평균 1.82개의 보기를 선택했다. 응답에 참여한 실제 기혼자들은 그래도 결혼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높이 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조사의 결과처럼 부부싸움의 원인은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특히 기타 응답률이 높고 상세한 점이 이를 말해준다. 부부 간의 다툼에는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미리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나와 비슷한 환경, 취향, 취미 등을 반영해,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결혼정보회사 성혼 회원 분석 & 실질 지표





성혼 회원 평균 분석

가연 결혼정보 서비스의 '가입부터 성혼까지' 자체 조사

·대상: 가연 신규 가입 후, 당해년도에 성혼 계약을 완료한 회원들의 평균 데이터

·기준: 2021년~2025년

회원가입 연도	성혼 상대를 만난 미팅 회차	교제 시작일 (회원가입일 기준)	성혼 계약 완료일 (회원가입일 기준)
2021년	4 회차	71 일 후	215 일 후
2022년	3 회차	84 일 후	210 일 후
2023년	3 회차	72 일 후	215 일 후
2024년	3 회차	70 일 후	248 일 후
2025년	5 회차	67 일 후	191 일 후

지난 5년간의 데이터 확인

→ 성혼 상대를 만난 미팅 회차는 평균 3~5회 이내

→ 성혼 상대와 교제를 시작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67~84일 이내

→ 성혼을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91일~215일 이내



성혼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가장 최근 년도인 2025년은 교제 시작일과 성혼 계약 완료일이 5년 중 가장 짧은 기간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연에서 조기 성혼하는 회원들의 소요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많은 만남을 이어가기보다, 일정 기간 안에 결혼 가능성이 높은 상대를 집중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커플매니저와 매칭매니저가 팀을 이루어 관리하는 '2:1 관리' 외에도, 회원이 직접 이성 회원을 검색하고 프러포즈할 수 있는 서비스인 '가연 멤버스'와 AI 알고리즘이 회원의 취향을 분석해 자동으로 프로필을 추천하는 'AI 추천'까지. 가연은 매칭의 확률과 성사율을 높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매칭만족도 누적 91.3%

가연 결혼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 만족도 평가, 자체 설문조사

·대상: 프로필 추천 완료 정회원

·기준: 2023년 3월 1일~2026년 4월 26일

받은 이성 프로필 및 매니저의 서비스 만족도 항목

→ 총 4개 평가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 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 고객의 기대와 실제 매칭 경험 간의 만족도가 90% 이상

약 10명 중 9명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 매칭의 정밀도와 신뢰도를 보증한다.



기혼남녀 '생활비 관리' 리포트 (2021~2025)

1. 조사 개요

조사 기간 & 조사 대상 및 인원

2021.07.07 기혼남녀 500명 (남녀 각 250명, 25~39세)

2025.01.16 기혼남녀 500명 (남녀 각 250명, 25~39세)

조사 주체 가연결혼정보(주)

조사 방식: 오픈서베이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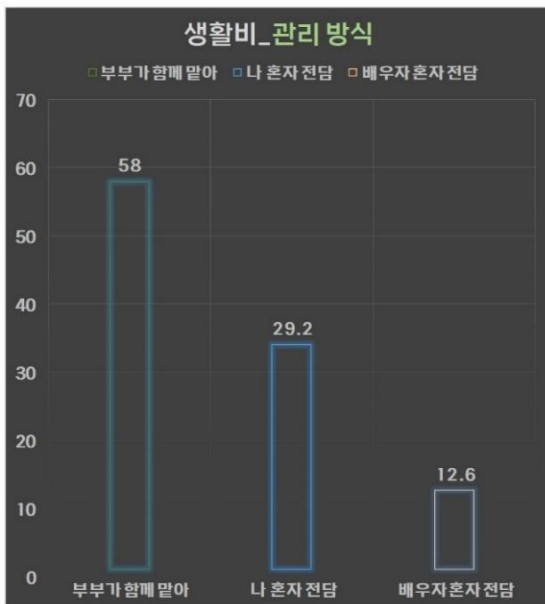
표본오차:

2021.07.07 조사 $\pm 4.38\%P$ (95% 신뢰수준)

2025.01.16 조사 $\pm 4.38\%P$ (95% 신뢰수준)

2. 연도별 조사 결과

'결혼, 생활비 관리와 분담' (2021.07.07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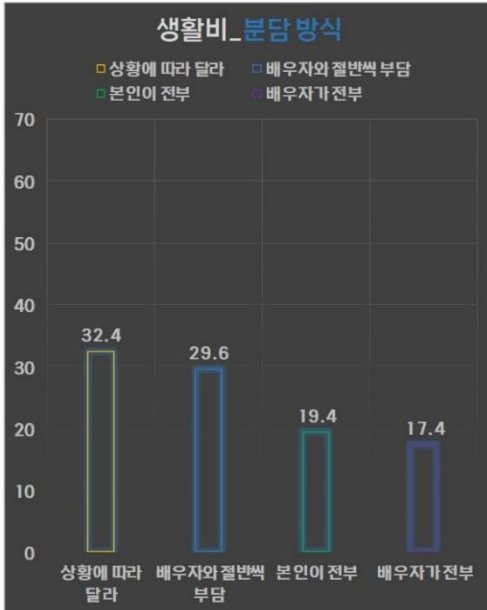
"생활비 관리 방식"

-부부가 함께 맡아 (58%)

-나 혼자 전담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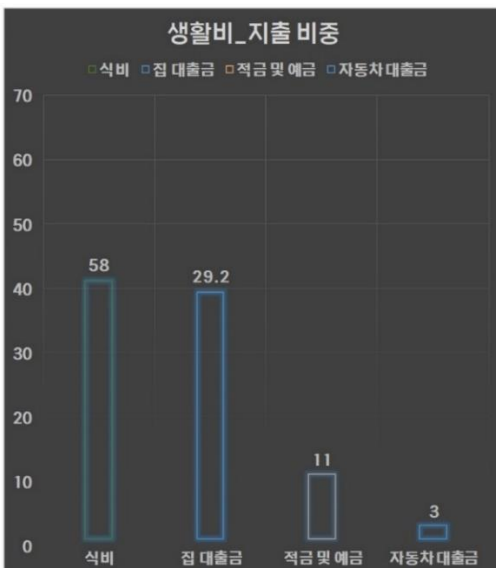
-배우자 혼자 전담 (12.6%)

-기타 (58%) : 부모님에게 맡긴다 등



“생활비 분담 방식”

- 상황에 따라 달라 (32.4%)
- 배우자와 절반씩 부담 (29.6%)
- 본인이 전부 부담 (19.4%)
- 배우자 전부 부담 (17.4%)
- 기타 (1%) : 같이 부담하지만 절반은 아니다, 수입을 모두 합친 후 분배한다, 소득에 따라 7:3 정도로 나눈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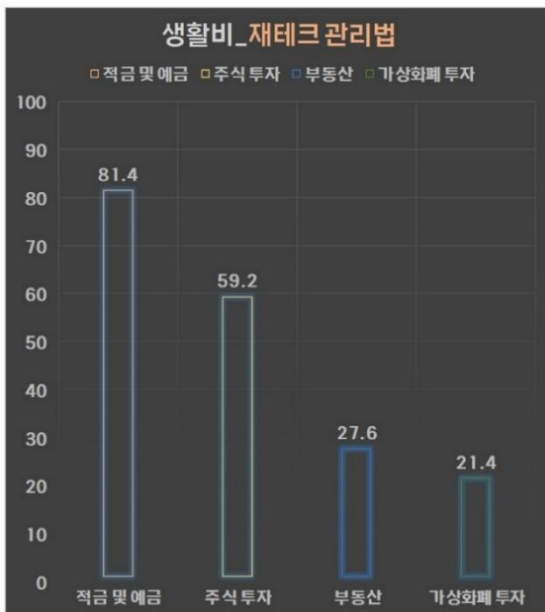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 비중”

- 식비 (41.2%)



- 집 대출금 (39.4%)
- 적금 및 예금 (11%)
- 자동차 대출금 (3%)
- 교육비 (1.8%)
- 개인용돈 (1.4%)
- 기타 (1.2%) : 생활비를 포함한 카드값, 육아용품 등
- 의료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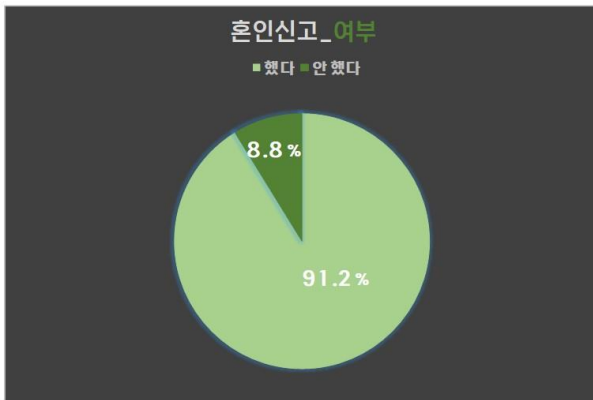


“재테크 관리 방법” (중복 응답 가능)

- 적금 및 예금 (81.4%)
- 주식 투자 (59.2%)
- 부동산 (27.6%)
- 가상화폐 투자 (21.4%)
- 하고 있지 않다 (6.6%)
- 기타 (1%) : 금, 그림, 외화, 청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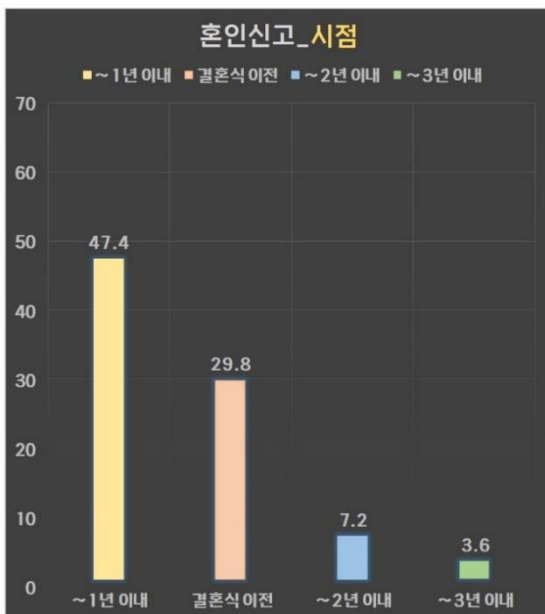


'결혼, 혼인 신고' (2025.01.1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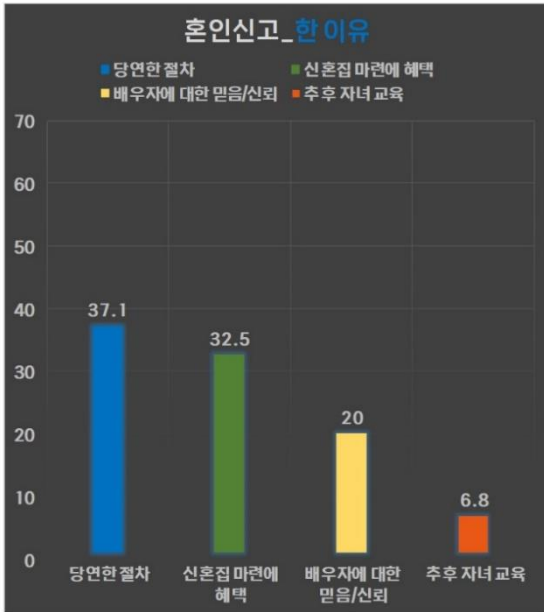
“혼인신고 여부”

- 했다 (91.2%)
- 안 했다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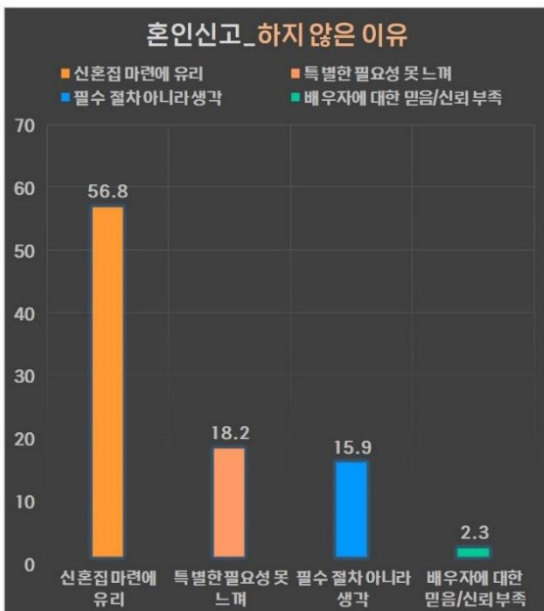
“혼인신고를 한 시점”

- 결혼식을 올린 후~1년 이내 (47.4%)
-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 (29.8%)
- 결혼식을 올린 후~2년 이내 (7.2%)
- 결혼식을 올린 후~3년 이내 (3.6%)
- 결혼식을 올린 후 3년 이상 지난 후 (3.2%)



“혼인신고를 한 이유”

- 결혼을 하면 당연한 절차라 생각해서 (37.1%)
- 신혼집 마련할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 (32.5%)
-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20%)
- 추후 자녀 교육을 위해서 (6.8%)
- 기타 (3.7%) : 자녀 출산, 회사 복지 혜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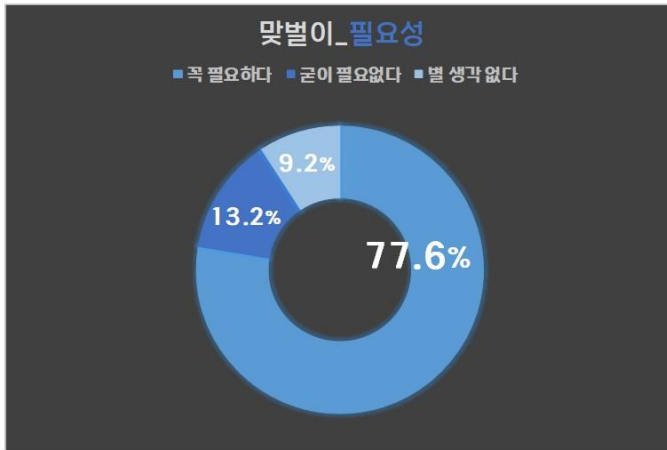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미혼인 상태가 신혼집 마련에 유리해서 (56.8%)
-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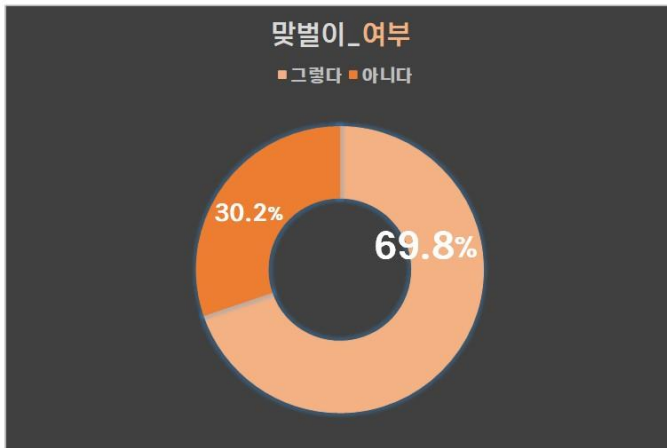
- 결혼해도 필수 절차는 아니라 생각해서 (15.9%)
- 기타 (6.8%)
- 아직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하지 않아서 (2.3%)

'결혼, 맞벌이' (2025.01.16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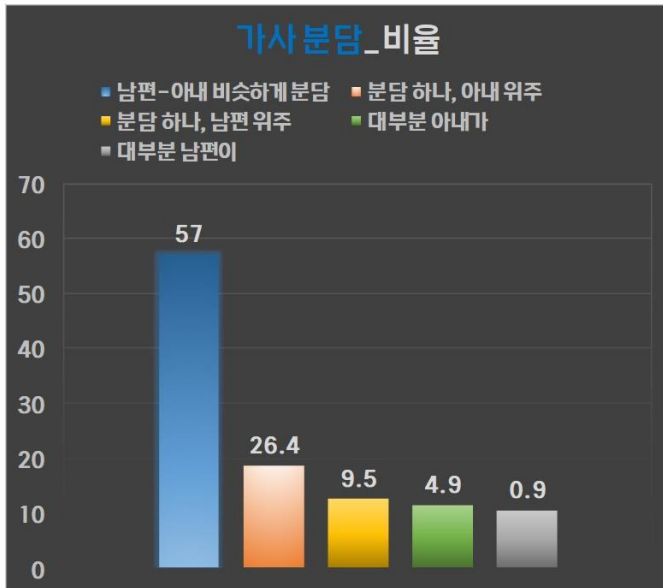
“맞벌이의 필요성”

- 꼭 필요하다 (77.6%)
- 굳이 필요 없다 (13.2%)
- 별 생각이 없다 (9.2%)



“현재 맞벌이 여부”

- 그렇다 (69.8%)
- 아니다 (30.2%)



“가사 분담 비율”

- 남편과 아내가 거의 비슷하게 분담한다 (57%)
- 분담은 하나, 아내 위주로 한다 (26.4%)
- 분담은 하나, 남편 위주로 한다 (9.5%)
- 분담하지 않고, 대부분 아내가 한다 (4.9%)
- 분담하지 않고, 대부분 남편이 한다 (0.9%)
- 기타 (1.4%)

3. 조사 분석

1) 결혼생활의 '공동 관리'

2021년 조사, 생활비 관리 : 부부 공동 관리 58%

2021년 조사, 생활비 분담 : 절반 29.6% 또는 상황별 조정 32.4%

→ 결혼생활은 이제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보다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동화 ≠ 완전한 평등

2021년 조사, 본인이 전부 부담 : 남성 31.2%, 여성 7.6%

2021년 조사, 배우자가 전부 부담 : 남성 4.8%, 여성 30%

→ '공동 관리' 성향이 크나, 실제 부담은 대등하지 않았다.



→ 가계를 운영하는 방식은 공동화됐지만, 실제 부담에서는 여전히 남편 중심 부담 구조가 일부 남아있다. 생활비 부담에서는 남성이 전부 부담한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전통적 역할 구조가 여전히 일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 운영은 확대됐지만, 부담과 체감의 균형은 아직 조정 중으로 보아야한다.

3) 결혼은 감정? → 운영!

조사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결혼은 단지 “두 남녀가 함께 가족을 이루는 의식”에서 끝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경제 상황을 합치고, 분담하고, 맞벌이를 고민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설계하는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 최근 기혼자들에게 결혼은 감정적 결합을 넘어, 비용과 제도, 그리고 노동과 계획을 함께 조율하는 현실적 운영 체계로 확정되고 있다.

4. 가연결혼정보(주) 결혼연구소 소견

2021년 조사의 생활비 관리 측면에서 남녀 간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재테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단 6.6%인 것을 보면, 대다수의 기혼남녀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실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금전적인 문제의 경우, 현재 상황이나 계획에 따라 갈등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결혼 전과 후 모두 상대와 꼼꼼히 상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와 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응답의 80% 이상이었다.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으고 관리하니,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가연결혼정보에서 20대 회원의 가입이 늘어난 배경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빠르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점을 꼽은 것과 유사한 결을 보인다.

2025년 조사의 혼인신고 시기 중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을 택한 30대가 23.4%지만, 20대는 42.8%로 더 높았다. 상대적으로 30대보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대 입장에서는 집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혜택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30대는 결혼을 한 후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0대 부부는 ‘식 올린 후 1년 이내(52.4%)’를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인신고를 미룬 이의 대다수가 신혼집 마련을 1순위로 꼽은 것을 보면, 청약 같은 경우는 미혼일 때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세액 공제, 청약 기회 확대 등 기혼자를 위한 혜택이 늘어나고, 점점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정책이 집중되고 있으니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다.

점점 맞벌이를 필수로 여기는 추세에는 한 개인보다 사회적인 변화와 영향이 클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적용되길 바란다. 그럴수록 가정에서는, 서로의 경제 활동과 가사 분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2) 결론 및 요약

2021년 조사에서는 기혼가구의 생활비 관리와 분담, 재테크 방식 등을 통해 결혼 후 경제 운영의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경향이 강했고, 분담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다만 실제 비용 부담에서는 성별 차가 남아 있어, 공동 운영의 확대와 완전한 평등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도 함께 드러났다.

2025년 조사에서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이 혼인신고와 맞벌이·가사 분담 등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된 모습이 나타났다. 혼인신고는 주거 혜택과 제도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되는 경향을 보였고, 맞벌이는 사실상 결혼생활의 기본 조건처럼 인식됐다. 동시에 가사 부담에서는 '비슷하게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성별 체감 차이가 확인돼, 경제 활동의 공동화에 비해 생활 운영의 평등감은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최근 기혼자들에게 결혼은 단순한 관계 형성이 아니라, 생활비와 재테크를 함께 관리하고, 비용과 역할을 조율하며, 제도 선택까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동 운영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점차 결혼은 경제 공동체를 넘어 생활 운영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본 리포트는 가연결혼정보(주)의 실제 조사와 분석, 회원 경험을 기반으로 발행됐습니다.